

	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개념편	45페이지	③ 합성 형용사 中 -형용사 활용형 + 형용사: 쓰디쓰다, 크나크다, 머나 멀다, 하고맴다	③ 합성 형용사 中 -형용사 활용형 + 형용사: 쓰디쓰다, 크나크다, 머나 멀다, 하고맴다
	58페이지	27. '늦봄의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었다'	27. '늦봄의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었다.' (마침표 추가)
	99페이지	더 알아보기'의 첫 번째 예 중, ③ 그 사람의 문장 성분을 파악한다. : 아버지 - 주어, 할아버지 - 목적어, 어머니 - 청자	더 알아보기'의 첫 번째 예 중, ③ 그 사람의 문장 성분을 파악한다. : 아버지 - 주어, 할아버지 - 부사어 , 어머니 - 청자
	164페이지	더 알아보기' 헛갈리는 겹받침의 표준 발음법 ② 러'	더 알아보기' 헛갈리는 겹받침의 표준 발음법 ② 러 ('삭제)
	117페이지	예) 학생들이 신조어를 만든다. 1. 목적어를 주어로 만든다: ' 세상을 → 세상이 '	예) 학생들이 신조어를 만든다. 1. 목적어를 주어로 만든다: ' 신조어를 → 신조어가 '
책속의 책	26페이지	15. 몰 16. 만나 16. -에서 18. 다 25. 이	15. 몰- 16. 만나- 16 에서 18. -다 25.-이
	28페이지	49번 해설 목적어 '치킨을' 생략	목적어 ' 음식을 ' 생략
기출문제편	174페이지		②번 기호가 빠져있음.
	236-238페이지0	22번~25번 <학습 활동>	<보기>
	149페이지	2번 선택지 ㉔에서 '아니다'는 '고래'가 '어류'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	2번 선택지 ㉔에서 '아니다'는 '고래'가 '어류'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.
해설	19페이지	88번 해설 즉 '누-+-이-+-어'는 ' 뉘어 ' 혹은 '누어'로만 적는다.	88번 해설 즉 '누-+-이-+-어'는 ' 뉘어 ' 혹은 '누어'로만 적는다.
	65페이지	55번 [오답 풀이] ① ㄱ의 안긴문장 '내가 (책을) 읽던'에는 목적어 '책'이 생략되어 있다. ② ㄴ의 안긴문장 '자신이 그 일의 책임자임'은 목적격 조사 '을'과 결합하여 목적어 기능을 한다. ③ ㄷ의 안긴문장 '내가 읽던'은 체언 '책'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며, ㄷ의 안긴문장 '무장 강도가 은행 을 침입한' 역시 체언 '사건'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. ④ ㄹ의 안긴문장 '그는 자신이 그 일의 책임자임'에는 명사형 어미 '-ㅁ'이 결합되어 있으며, ㄹ의 안긴문장 '옥수수가 자라기'에는 명사형 어미 '-기'가 결합되어 있다.	(아래는 56번 [오답 풀이]에 있는 내용임) ① '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.'의 '자란다'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므로 ㉔을 만족한다. 그러나 '자라다'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므로 ㉔을 만족하지 않는다. ③ '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.'의 '조용합니다'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므로 ㉔을 만족한다. 그러나 이 문장에는 부사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㉔을 만족하지 않는다. '산중에 있으므로'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이다. ④ '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?'에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'-었-'이 쓰였으므로 ㉔을 만족하지 않는다. 반면, 명사절 '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'에는 부사격 조사 '로'가 결합되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㉔은 만족한다. ⑤ '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공팡이가 슬었어.'의 서술어 '슬다'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㉔을 만족한다. 그러나 안긴문장 '큰 아버지께 받은'은 '책'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㉔을 만족하지 않는다.
	65페이지	56번 [오답 풀이] ① '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.'의 '자란다'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므로 ㉔을 만족한다. 그러나 '자라다'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므로 ㉔을 만족하지 않는다. ③ '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.'의 '조용합니다'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므로 ㉔을 만족한다. 그러나 이 문장에는 부사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㉔을 만족하지 않는다. '산중에 있으므로'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이다. ④ '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?'에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'-었-'이 쓰였으므로 ㉔을 만족하지 않는다. 반면, 명사절 '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'에는 부사격 조사 '로'가 결합되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㉔은 만족한다. ⑤ '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공팡이가 슬었어.'의 서술어 '슬다'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㉔을 만족한다. 그러나 안긴문장 '큰 아버지께 받은'은 '책'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㉔을 만족하지 않는다.	① '되었다'는 주어(계절이), 보어(가을이)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이다. ② '달았다'는 주어(오빠는), 부사어(아빠와)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이다. ③ '피었다'는 주어(장미꽃이)를 요구하는 1자리 서술어이다. ④ '고치셨다'는 주어(아버지께서), 목적어(집을)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이다.
	101페이지	빠른 정답 113번 ②	113번 ①
	127페이지	113. ② ㉔: '줄-+-아[조아]'에서는 어간의 자음 'ㅎ'이 탈락하였으나 표기는 '조아'가 아닌 '줄아'로 하므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다. 따라서 ㉔에 해당한다. ㉔: '동글-+-ㄴ[동근]'은 자음 'ㄴ'이 탈락하였으며, 표기 역시 '동근'으로 하므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. 따라서 ㉔에 해당한다.	113번 ① ㉔: '동글-+-ㄴ[동근]'은 자음 'ㄴ'이 탈락하였으며, 표기 역시 '동근'으로 하므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. 따라서 ㉔에 해당한다. ㉔: '줄-+-아[조아]'에서는 어간의 자음 'ㅎ'이 탈락하였으나 표기는 '조아'가 아닌 '줄아'로 하므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다. 따라서 ㉔에 해당한다.